

An Analysis on the Impact of Policy Awareness and Needs on Trust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mong Socially Underprivileged Class

Ju Ho Lee^{1#}, Jong Il Na², Seol A Kwon², Dong Kyun Yim², Jae Eun Lee^{2*}

¹ Sehan University, Namsan-gil, Sinpyeong-myeon, Dangjin-si, Chungnam, Korea

² National Crisisonomy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wareness and needs and policy trust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articularly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cy nee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HRCK (2018) and restructured for this study. Policy awareness and need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ere proven to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policy trust. According to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interaction terms between policy awareness and policy needs,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cy needs was not found with a low explanatory power.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policy needs are different from policy awareness and can be treated as a predictor variable of policy tru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policy needs should be reflected in actual policies to secure policy trust.

Key words: socially underprivileged class, policy awareness, policy needs, policy trust,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1. 서론

2010년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 화재, 2015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2017년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 2018년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외에도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잇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난취약계층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개선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은 사회적 약자가 생각하는 현행 재

난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욕구에 대한 충분한 담론과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 정책신뢰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DMI, 2017; KWDI, 2014; KDPDI, 2015; Jang, 2016; Choi, 2016; Lee, 2014; NIDP, 2010). 특히 재난 발생 시 노인, 장애인, 아동 및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그룹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들 사회적 약자가 초동대응 및 대피 과정에서 겪는 상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충분한 안전교육과 안전설비 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The 1st author: Ju Ho Lee, Tel. +82-41-359-6151, Fax. +82-41-359-6069. e-mail. leejuho@sehan.ac.kr

* Corresponding author: Jae Eun Lee, Tel. +82-43-261-2197, Fax. +82-43-268-2197, e-mail. jeunlee@chungbuk.ac.kr

있다(Lee, 2018; Park, 2018; Choe, 2018; Park, 2018).

실상 정부는 재난이 현재화될 때마다 정부의 미흡한 재난관리 방식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재난이슈에 있어 정부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 것을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받고(Hetherington & Nugent, 2001; Kim, 2017: 3 재인용), 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조직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재난에 대한 불안과 안전사회 구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마저 팽배해져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신뢰 확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는 부분으로, 특히 사회복지시설 내에 적용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정책으로서 사회적 약자 특성을 고려한 대피 및 초동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재난정보 및 대피체계, 대피계획 등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법제화 방안과 특화된 대책과 교육, 장비, 지원절차 등에 대한 욕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신뢰 확보를 위한 과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재난안전관리 정책육구에 대한 정책반영이 부족한지, 혹은 정책에 대한 인지 부족의 문제가 정부의 정책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통해 정책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와 종사자가 가진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는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신뢰와 관련되어 있는가? 정책육구는 정책인식과 정책신뢰 사이에서 조절변인으로서 영향력을 갖는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재난안전관리 정책신뢰 확보 측면에서 함의를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최근 NHRCK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8)가 수행한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의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의 설정을 통해 각 변인 간 영향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약자와 재난안전 지원정책 필요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명분과 함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Yu, 2008: 25). 그동안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재난약자, 재난안전약자, 안전약자, 재난취약계층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NIDP, 2010; NDMI, 2013; Nemoto & Ariga, 2014; Choi,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 시 다음과 같은 공통적 취약성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약자 그룹은 신체적 측면에서 자력에 의한 대피 및 초동대응이 어려운 사람으로 장애인, 고령자, 유아 및 청소년 등이 다수를 차지하며, 둘째, 환경적으로 문화적 혹은 생활환경의 변화 차이로 인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재난에 취약성을 갖는 한편, 셋째, 기본적인 안전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제적 취약성을 갖는 계층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런 사회적 약자 그룹이 갖는 차이는 뚜렷한 경계를 갖는 것이 아니며, 복합적인 형태로 노출되어 재난 발생 시 대응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헌법 명문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만큼 안전권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등의 사회적 기본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서 안전권 입지를 넓히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Lee & Jun, 2015: 133). 이는 안전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로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각과 맥락을 같이하며, 일반인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재난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이 어디까지 담보되고 있는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안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2010년 포항인덕원 화재, 2015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최근제천 복합건물화재와 밀양요양병원 화재는 재난

발생 시 신체적 취약성을 갖는 사회적 약자 그룹에 대한 안전 확보 문제는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미 2017년 ‘안전취약계층’ 용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도입되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피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신체적 취약성을 갖는 사회적 약자의 행동특성이나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은 법적 설치의무화에 초점을 둘 뿐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Choe, 2018: 7).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갖고 있는 현행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욕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신뢰 확보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개선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인식 및 정책욕구와 정책신뢰의 관계

사전적 의미에서 신뢰는 ‘믿고 의지함’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제 간 합의에 불구하고 신뢰의 개념은 학문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Hosmer, 1995; Kim, 2017: 28 재인용). 다만, Matsuda & Yamagishi(2001)는 일반적 신뢰에 대해 타인의 신뢰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갖는 신뢰로 정의함으로써 구체적·정보의존적 신뢰와 구분함으로써 신뢰의 다차원적 접근에 기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연구되는 신뢰는 정부신뢰와 정책신뢰가 혼용되고 있으나 학술적으로 구체화 된 개념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정부신뢰가 “한 사회의 기본적 게임의 규칙에 의해 공유된 신뢰로서(Park, 2004: 90)”, 정부가 수행한 공공정책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의존(Kim, Lee & Choi, 2009; Lee & Kwon, 2013: 198)한다는 점에서 정부신뢰와 정책신뢰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더 나아가서 정책신뢰는 정부의 산출물로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보이는 규범적 기대감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신뢰는 정부신뢰의 선행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신뢰의 형성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나, Hwang & Seo(2015)은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서 정책과정에 주목하여 특히, 정부의 절차적·과정적 성과 하위요인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적 권한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존중하고 있는가가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적 권한의 존중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고 있는가는 정책신뢰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Kim & Yi(2009)는 국가경제에 대한 개인 인식과 경제안전정책을, Gershtenson & Dennis(2007)는 정책 선호를, Park & Kim(2015)은 정책만족도의 하위요인으로서 정책 산출물에 대한 평가, Lee & Min(2015)은 상황적 요인으로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인식)가 정부신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정책인식과 정책신뢰와의 관계에서 정책욕구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드물지만, D. Easton(1965)이 공공정책을 “사회적 요구와 지지에 대한 정치체제의 반응과 산출물”로 정의하고 있는 관점을(Han, 2013 재인용) 고려할 때 정책욕구는 정책인식 만큼이나 정책신뢰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책이 정책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분야에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정책인식과 정책신뢰의 직접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그동안 논의가 부족했던 정책욕구를 조절변수로서 정책신뢰에 대한 영향력과 정책인식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 변인 사이에서의 조절효과를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III. 조사설계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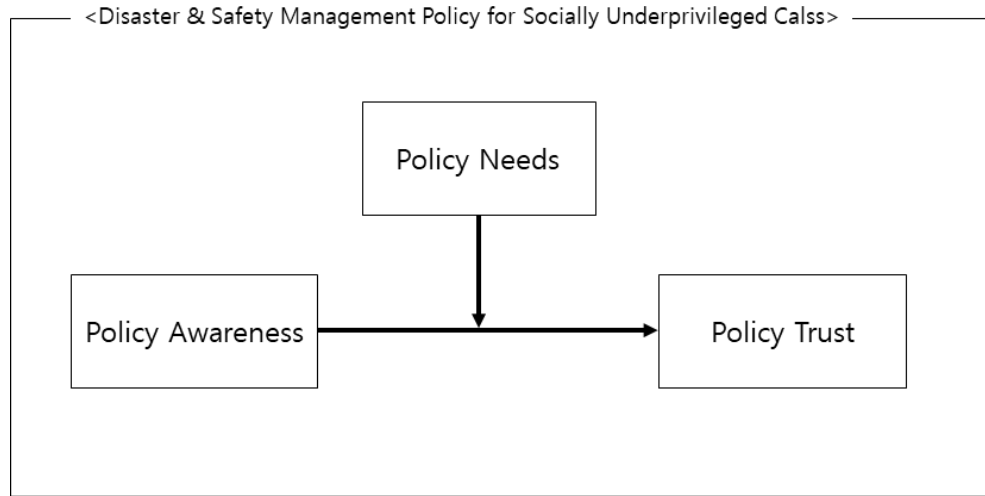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루어지는 재난안전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및 시설 종사자의 정책인식과 정책욕구가 정책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하여 정책인식과 정책신뢰 사이에서 정책욕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관리 정책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둘째, 재난안전관리 정책욕구가 높을수록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신뢰는 낮아질 것이다.

셋째, 재난안전관리 정책욕구는 정책인식과 정책 신뢰 사이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이 수립하였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밝힌 바와 같이 NHRCK(2018)의 조사를 통해 기 수집된 통계자료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NHRCK(2018)는 2018년 9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종합병원, 노인요양병원, 산부인과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사회복지유형의 시설을 무작위 추출방법에 의거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따른 응답은 사회적 약자 111명, 시설종사자

6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유의성을 고려하여 응답률이 유의한 표본으로 시설 이용자(사회적 약자 및 가족) 73명

Table 1. Socio-demographics

Division		N	%	accumulate %
Responder Type	User	73	53.7	53.7
	Worker	63	46.3	100.0
Gender	Female	101	74.3	74.3
	Male	35	25.7	100.0
Age	21-30	22	16.2	16.2
	31-40	40	29.4	45.6
	41-50	29	21.3	66.9
	51-60	27	19.9	86.8
	61 years or older	18	13.2	100.0
Marriage	Single	24	17.6	17.6
	Married	109	80.1	97.8
	No answer	3	2.2	100.0
Facility Type	Postpartum care	13	9.6	9.6
	Disabled	20	14.7	24.3
	Social welfare	2	1.5	25.7
	Hospital	23	16.9	42.6
	Elderly care	13	9.6	52.2
	Elderly welfare center	3	2.2	54.4
	Foreigner protection	1	.7	55.1
	etc	61	44.9	100.0
Disaster Experience	No	65	47.8	47.8
	Yes	71	52.2	100.0
Total		136	100.0	

(53.7%), 시설 종사자 63명(46.3%)의 총 136명의 연구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표본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한편, 조사에 사용된 도구문항은 NHRCK(2018)의 조사항목 중 응답자 특성을 제외한 재난안전관리 인식(6문항),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필요성(5문항), 재난안전관리 대책 실태(6문항), 재난안전관리 정책 인식(6문항), 재난안전관리 요구(5문항), 지원정책 욕구(5문항), 정부신뢰(6문항)를 바탕으로 재난안전관리 인식(6문항), 재난안전관리 정책인식(6문항), 정책신뢰(6문항)를 각각 정책인식, 정책욕구, 정책인식, 정책신뢰의 변인 구성 문항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재난안전관리인식은 일반인과 차별화한 배려 정책 필요성, 관련 법제도화의 구체화, 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안전대책 마련,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별도 구조장비의 필요성, 별도 피해 지원 절차의 필요성의 6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둘째, 정책인식은 교육 실효성, 재난정보 실효성, 대피방법의 실효성, 대피로 및 대피처 실효성, 스스로 안전 확보의 실효성, 정부 지원사항의 실효성의 6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신뢰는 재난안전관리 계획의 충분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응활동의 실시, 재난대피계획의 신뢰성, 재난대응활동의 신뢰성, 정부 지원활동의 신뢰성, 정부 재난지원정책의 만족도의 6개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의 분석방법은 조절회귀분석(MMR: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이는 조절변수의 검증방법으로 가장 일반화된 방법이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예측하는데 있어 조절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Han, 2002: 144). 이 과정에서 도구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각 변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함께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의 타당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써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는 1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하며, 0.8이상이면 매우 바람직하고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인별 Cronbach's α 는 모두 0.8이상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또한,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함께 시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통한 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베리맥스(Verimax)에 의한 직각회전 방식으로 요인추출방법은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KMO는 0.867로 매우 양호하였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의 유의도는 0.000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각 변인의 구성으로 첫째 정책욕구는 5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수정된 문항의 Cronbach's α 는 0.948로 나타났다. 정책인식은 6개 문항의 요인유목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신뢰는 5개 문항의 요인 유목화가 확인되었으며, 수정된 문항의 Cronbach's α 는 0.967로 확인되었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인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연구 변

Table 2.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Divis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Independent Variable	policy awareness for disaster & safety management	6	0.876
Moderating Variable	policy needs for disaster & safety management	6	0.938
Dependent Variable	policy trust for disaster & safety management	6	0.938

Table 3.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Division	Factors			Cronbach's α of Revised questions
	policy awareness	policy trust	policy needs	
policy needs1	-.413	-.012	.041	0.948
policy needs2	-.007	-.045	.915	
policy needs3	-.017	-.113	.885	
policy needs4	.000	-.144	.919	
policy needs5	.050	-.073	.901	
policy needs6	.004	-.066	.899	
policy awareness1	.761	.079	.253	0.938
policy awareness2	.877	.195	.046	
policy awareness3	.897	.140	.013	
policy awareness4	.907	.196	-.024	
policy awareness5	.850	.214	-.095	
policy awareness6	.787	.292	-.118	
policy trust1	.482	.450	.146	0.967
policy trust2	.217	.861	-.110	
policy trust3	.175	.923	-.086	
policy trust4	.175	.933	-.120	
policy trust5	.164	.925	-.100	
policy trust6	.173	.925	-.136	

KMO: 0.867 / Bartlett sphericity test: $\chi^2=2618.436$, $df=153$, $p=0.000$

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정책욕구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 시 일반인보다 재난 대처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M=2.7279$, $SD=1.68421$ 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가운데 응답의 편차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련법에 재난안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M=4.2721$, $SD=0.70414$ 로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별도의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M=4.2500$, $SD=0.72776$ 으로 정책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M=4.3235$, $SD=0.66536$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구조장비가 별도로 필요한가?”에 대하여도 $M=4.3235$, $SD=0.71887$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피해지원 절차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M=4.2794$, $SD=0.70649$ 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인식에 대하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하여 $M=3.9338$, $SD=0.98283$ 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 시설의 재난경보방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하여는 $M=3.8235$, $SD=0.9728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 시설의 대피방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하여는 $M=3.8015$, $SD=0.95700$,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 시설의 대피로 및 대피처는 사용자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하여는 $M=3.8235$, $SD=0.90988$,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 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사용자 스스로 안전한 대피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하여는 $M=3.6985$, $SD=0.95312$,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 정부 지원 사항은 사회적 약자 유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M=3.6176$, $SD=0.97418$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신뢰에 대하여는 “현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계획은 충분한가?”에 대해 M=3.5294, SD=0.98839,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응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M=3.0294, SD=0.89394, “정부의 각종 재난대피계획은 신뢰하는가?”에 대하여 M=2.9779, SD=0.96200, “정부의 각종 재난대응활동은 신뢰하는가?”에 대하여 M=2.9265, SD=0.98607, “정부의 지원활동을 신뢰하는가?”에 대하여는 M=2.9191, SD=0.98924, “정부의 재난지원정책에 만족하는가?”에 대하여는 M=2.9559, SD=0.95737로 나타났다.

상기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한 욕구는 낮으나, 법제도화 및 재난안전대책, 재난안전교육, 별도의 구조장비, 피해지원 절차 등 제도적 세분화에 대한 정책욕구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정책인식은 상대적으로 보통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신뢰와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 계획의 충분성과 대응활동에 대해

는 보통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정책신뢰성과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사회적 약자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신뢰에 대한 조절회귀분석

1) 변인 간 영향관계 분석

연구가설의 검증에 위해 1차적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절회귀분석 과정의 상호작용항에 대하여는 평균집중화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검증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측정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가설 1과 가설 2의 정책인식과 정책욕구가 정책신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2모형과 같이 확인되었다. 정책인식($\beta=0.396, p=0.000$)은 정책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책욕구($\beta=-0.209, p=0.008$)는 정책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때 모델의 설명력은 18.8%로 $F=16.618, p=0.000$ 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Table 4. Response average by factors

Division	N	min	max	M	SD
policy needs1	136	1.00	5.00	2.7279	1.68421
policy needs2	136	2.00	5.00	4.2721	.70414
policy needs3	136	2.00	5.00	4.2500	.72776
policy needs4	136	3.00	5.00	4.3235	.66536
policy needs5	136	2.00	5.00	4.3235	.71887
policy needs6	136	2.00	5.00	4.2794	.70649
policy awareness1	136	1.00	5.00	3.9338	.98283
policy awareness2	136	1.00	5.00	3.8235	.97283
policy awareness3	136	1.00	5.00	3.8015	.95700
policy awareness4	136	1.00	5.00	3.8235	.90988
policy awareness5	136	1.00	5.00	3.6985	.95312
policy awareness6	136	1.00	5.00	3.6176	.97418
policy trust1	136	1.00	5.00	3.5294	.98839
policy trust2	136	1.00	5.00	3.0294	.89394
policy trust3	136	1.00	5.00	2.9779	.96200
policy trust4	136	1.00	5.00	2.9265	.98607
policy trust5	136	1.00	5.00	2.9191	.98924
policy trust6	136	1.00	5.00	2.9559	.95737

Table 5.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Adjusted R ²	F	p
		B	SE	β			Tolerance	VIF			
Model 1	(constant)	1.354	.331		4.093	.000			0.150	24.780	.000
	policy awareness	.425	.085	.395	4.978	.000	1.000	1.000			
Model 2	(constant)	2.611	.567		4.607	.000			0.188	16.618	.000
	policy awareness	.426	.083	.396	5.109	.000	1.000	1.000			
	policy needs	-.294	.109	-.209	-2.700	.008	1.000	1.000			
Model 3	(constant)	2.425	2.510		.966	.336			0.182	10.998	.000
	policy awareness	.477	.665	.443	.717	.475	.016	63.012			
	policy needs	-.254	.542	-.181	-.468	.640	.041	24.530			
	awareness × needs	-.011	.143	-.055	-.076	.939	.011	86.978			

Dependent Variable: policy trust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2) 조절효과 검증

조절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효과의 검증은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초점을 두며 따라서 모델의 설명력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각 모형의 수정된 R², F변화량과 이 때의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결과 2모형은 1모형보다 0.038만큼 설명력이 높아졌으며, 변화량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3모형은 오히려 2모형보다 설명력이 -0.006만큼 감소한 가운데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즉 정책인식×정책욕구는 회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책욕구는 조절수로 작용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예측변수, 즉 정책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직접효

과만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조절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효과의 검증력에 대하여 Cronbach(1987)는 검정력(파워)의 한계를 제시하며, 이 외의 연구들에서도 총 표본의 크기, 조절변수에 기초한 하위집단(성별, 연령 등)의 불균등한 표본 크기, 예측변수의 범위제한, 오차분산의 이질성, 변수의 측정오차, 예측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 척도의 조악성(scale coarseness), 그 밖의 제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 문제 등으로 통계적 해석의 한계에 불구하고 조절효과를 무조건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Han, 2012: 148-151).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후방회귀(backward regression) 사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조절회귀분석의 기본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이 있어(Stone, 1988)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자의 유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사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Han, 2012: 157).

Table 6. Test result of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R	R ²	Adjusted R ²	Stanard error of the estimate	Statistical variation				
					R ² Variation	F Variation	df1	df2	Significance F variation
Model1	.395a	.156	.150	.83007	.156	24.780	1	134	.000
Model2	.447b	.200	.188	.81124	.044	7.292	1	133	.008
Model3	.447c	.200	.182	.81429	.000	.006	1	132	.939

결과적으로 정책욕구가 정책신뢰에 대하여 갖는 부(-)의 효과가 정책인식이 정책신뢰에 갖는 정(+)의 효과를 상쇄하는 원인에서 조절효과의 검증이 확인되지 않는 의구심이 제기되나 본 연구자료 및 조사도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조절회귀분석의 기본원칙 수용과 통계적 검증결과에 따라 정책인식과 정책신뢰 사이에서 정책욕구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현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정책 필요성에 대한 욕구, 그리고 정부신뢰 측면에서 정책신뢰에 대해 학술적 측면에서 이들 각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그동안 논의가 부족했던 정책욕구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자료의 원데이터는 NHRCK(2018)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검증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도구 문항을 재구조화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NHRCK(2018)의 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기대)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에 있는 반면, 정책욕구는 높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가운데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인식과 정책욕구는 정책신뢰와 유의미한 직접 영향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하지만 정책인식과 정책신뢰 사이에서 정책욕구의 조절효과에 대하여는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를 통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인식×정책욕구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모델의 설명력 또한 오히려 낮아져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욕구가 정책신뢰에 대한 예측변수로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책욕구의 정책신뢰에 대한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가 정교화 된 논리적 연구설계 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항이 아닌 이미 조사된 수집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한 만큼,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정책욕구와 정책신뢰 사이의 관계 규명을 위한 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 정책인식과 정책욕구 사이의 영향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책욕구가 정책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책인식과 별개의 차원에서 정책욕구에 부합하는 정책도출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대응활동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재난대피계획과 재난대응활동의 신뢰성은 낮으며, 재난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지원활동 또한 신뢰성이 낮고, 만족도도 낮게 나타나 사회적 약자가 가진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욕구 측면에서 보다 다차원적인 욕구파악과 정책설계를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재난안전관리 정책수립 과정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약자 그룹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이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9946).

References

- Asha, Hans. 2013. Disaster Risk Reduction and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2): 1-14.
- Baron, R. M.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ss, R. W. 1978. Trust and Managerial Problem Solving Revisited. *Group & Organizations Studies*. 3: 331-342.
- California Governor'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2000. Meeting the Needs of Vulnerable People in Times of Disaster: A Guide for Emergency Managers. California Governors'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 Choe, Gyu Chul. 2018. Safety Evacuation Countermeasure for Safety Vulnerable Social Group. *Welfare Issue Today*. 60(3): 7.
- Choi, Kyung Sik. 2016. A Study on Improvement of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 Choi, Seong Soo, Kwang Ok Kim, Jin Young Choi, and Hyun Deuk Kim. 2017. A Study of the Effect of Aviation · Tourism Industry Employees' Airport Service Policy Acceptance on Creating Customer's Valu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25(1): 11-22.
- Christen, C. T. 2004. Predicting Willingness to Negotiate: The Effects of Perceived Power and Trustworthiness in a Model of Strategic Public Rela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6(3): 243-267.
- Clark, George E., et. al. 1998. Assessing the Vulnerability of Coastal Communities to Extreme Storms: The Case of Revere, Ma., USA,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 3. PP: 59-82.
- Cronbach, L. J. 1987. Statistical Tests for Moderator Variables: Flaws in Analyses Recently Proposed. *Psychological Bulletin*. 102: 414-417.
- Easton, D. 1965. A System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ey.
- Easton, D. 1975.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Trus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 435-457.
- Faulkner, Bill. 2001. Towards a Framework for Tourism Disaster Management. *Tourism Management*. 22: 135-141.
- Gershenson, Joseph and Dennis L. Plane. 2007. Trust in Government: 2006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Pilot Report. <http://www.electionstudies.org/resources/papers/Pilot2006/nes011890.pdf>.
- Han, In Soo. 2002. A Study of Statistical Power of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3(12): 143-161.
- Han, Suk Tae. 2013. Understanding Public Policy. Seoul: Daeyoung Co.
-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etherington, M. J. and J. D. Nugent. 2001. *Explaining Public Support for Devolution: The Role of Political Trust*. In John R. Hibbing and Elizabeth Theiss-Morse. (eds.).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4-155.
- Hoffman, S. 2008. Preparing for Disaster: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in Emergencies. *UC Davis Law Review*. 42: 1491-1544.
- Hosmer, L. T. 1995. Trust: The Connecting Link between Organizational Theory and Philosophical Ethic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2): 379-403.
- Hwang, Ah Ran and Bo Kyeung Seo. 2015. Policy Procedures and Government Trust: 2014 in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7(4): 1193-1214.
- Hwang, Sung Soo and Kwang Jai Yun. 2018. Exploring the Linkage between Policy Literacy and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Trust?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32(3): 209-226.
- Jang, Han Na. 2016.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n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People Vulnerable to Disaster.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11(2): 1-24.
- Jeon, Mi Suk. 2011. Analyzing the Influence of Media and Policy Reliability on Publics' Knowledge, Attitude and Risk Perception on Drugs. Ph.D. Dissertation. Sahmyook University.
- June, Isaacson Kailes. 2005. Disaster Services and "Special Needs": Term of Art or Meaningless Term?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on Independent Living.
- Kang, Shin Wook. 2014. Social Service for Vulnerable People during the Time of Disasters. Printed by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ilmer, R. P and V. Gil-Rivas. 2010. Responding to the Needs of Children and Families After a Disaster: Linkages Between

- Unmet Needs and Caregiver Function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0(1): 135-142.
- Kim, Byung Kyu and Kon Su Lee. 2009. Politico-economic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rust in Governmen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1(3): 893-914.
- Kim, Hyun Ku, Seung Jong Lee and Do Lim Choi. 2009.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rust in Government' Index: A Comparative Analysis of External and Internal Trust.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7(3): 1-24.
- Kim, Ji Young and Kyung Ah Kim. 2018. The Effects of Public's Percep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Role on Government Trus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2(4): 405-425.
- Kim, Ki Hyun and Tong Hee Park. 2011. Perception of Internet Information Quality and Trust in Government: Focusing on Participation of Young Netizen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in Public Policy Process. *Informatization Policy*. 8(4): 59-84.
- Kim, Myung Gu, Gi Geun Yang, and Gi Sung Chung. 2014. Improvement Directions for Disaster-Safety Welfare of the Vulnerable Groups from Natural Disaster. *Crisisonomy*. 10(9): 113-135.
- Kim, Soo Jin and Hee Won Cha. 2017. The Effect of Media Use and Safety Consciousness on Policy Recognition, Policy Needs, and Institution Trust: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Policy Typology of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8(4): 123-159.
- Kim, Wang Sik. 2011.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rust in Government: A Test of Cultural and Institutional Performance Approach.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oong University)*. 27(2): 141-161.
- Kim, Young Ju. 2017. The Effects of Trust in Government, Disaster Experience, and Social Capital on Disaster Risk Perception: Focusing on Disaster Victims in Local Area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5. Basic Research for Preparation of a Disabled-Inclusive Publ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Printed by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4. Recovery and Support Plans for Women Affected by Disaster. Printed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Lee, Dong Kyu and Youn Kyoung Min. 2015. After Ferry Sewol Disaster, How does Disaster and Safety Perception Affect Government Trust?: Centers on the Omnibus Survey of Disaster and Safety Perception Conducted by Korean Research. *Crisisonomy*. 11(3): 19-38.
- Lee, H. 2013. Cautions for Design Taking into Consideration People Vulnerable to Disaster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Design.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6(4): 218-233.
- Lee, Han Tae and Woo Suk Jun. 2015. A Study of the Right to Be Safe as a Fundamental Right in the Korean Constitution.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16(4): 121-145.
- Lee, Ho Soong. 2014. A Study on the Emergency Relief Design with Consideration for Weak Person of Disaster: Focused on the Countermeasure Emergency Relief Design in Earthquake Disaster. Ph.D.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 Lee, Ju Ho and Kyung Deuk Kwon. 2013. Intermediate Effects of Trust in the Influence of the Stakeholder's Interactions on the Willingness to Cooperate since the Hebei-Spirit Oil Spill Accident.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5(4): 195-218.
- Matsuda, M. and T. Yamagishi. 2001. Trust and Cooperation: An Experimental Study of PD with Choice of Dependence.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72: 413-421.
- Morris, J., J. Mueller, and S. LaForce. 2013. Social Media, Public Emergencies & Disability. *Journal on Technolog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167(PPT).
- Nabil, M. O. Kamel and Anastasia Loukaitou-Sideris. 2004. Residential Assistance and Recovery Following the Northridge Earthquake. *Urban Studies*. 41(3): 533-562.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13. Developing Research Contents for Safety of the Vulnerable People in Daily Life. Printed by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17. Improvement of Act and Policy on Disaster and Safe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Printed by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8.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for Protect of Human Rights for Socially Underprivileged Class during

the Time of Disasters. Printed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 2010. Research and Analysis of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Disasters. Printed by 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

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 2012. Developing Disaster Preparedness Contents Outreach Strategies for Disaster Vulnerable People. Printed by 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

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 2009. Emergency Preparedness Initiative: Functional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ashington D. C.: 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EPI.

Nemoto, Masatugu and Eri Ariga. 2014. Improvement Strategy of Social Support System with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 Comparative Study of Preliminary Survey Structure on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between Korea and Japan. *Crisisonomy*. 10(6): 67-87.

Park, Byoung Jin. 2004. Confidence in Government in Korea: Modern and Postmodern Factors. *Civil society & NGO*. 2(2): 87-119.

Park, Kwan Kyu and Young Dae Kim. 2015. Determining Factors of NPO's Influence on Policy Change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Policy Satisfac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1(1): 163-197.

Park, Kyung Soon.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Policy/Government Trust on the Degree of Policy Acceptance. Ph.D.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ark, Seong Yun. 2018.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Measures of Safety Management in Institute for Weak Person of Disaster in Korea. *Welfare Issue Today*. 60(3): 4.

Park, Soon Ae. 2006. Perceptions toward Government and Government Trust: Focusing on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0(2): 73-97.

Shin, Joong Ho. 2013. A Study on the Impacts of Individual Values and Governmental Policy Preference on Government Trust.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on, Ho Jung and Won Ho Chai. 2005. The Analyzing of Factors Influencing Trust in Governmen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9(3): 87-113.

Stone, E. F. 1988. Moderator Variables in Research 'A Review and Analysis of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pp. 191-229 in G. R 'Ferris & K. M. Rowland(eds.).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Vol.6, Greenwich, CT: JAI Press.

Yum, Hyeon Jeong. 2008. Collaborative Information Technology(CIT) Applications in Post-Disaster Public-Private Partnerships. *Crisisonomy*. 4(2): 1-15.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강신욱. 2014. 재난발생시 취약계층사회보장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인권위원회. 2018.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2010. 재난약자 방재대책 실태조사 및 분석.

국립방재연구원. 2012. 재난 취약자 대상 재난안전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전략 수립.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안전약자 유형별 생활안전 콘텐츠 발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장애인·노인 대상 재난안전 지원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김기현, 박통희. 2011. 인터넷정보의 질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20-30대 네티즌의 정책과정참여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8(4): 59-84.

김명구, 양기근, 정기성. 2014. 자연재난에 의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복지 개선방향: 전라북도 임실군의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0(9): 113-135.

김병규, 이곤수. 2009.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3): 893-914.

김수진, 차희원. 2017. 미디어이용과 안전의식이 정책인지, 정책 필요성 및 기관 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민안전처의 정책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8(4): 123-159.

김영주. 2017. 정부신뢰, 재난경험, 사회적 자본이 재난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재난 피해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왕식. 2011.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

- 학연구. 27(2): 141-161.
- 김지영, 김경아. 2018. 시민들의 정부정책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2(4): 405-425.
- 김현구, 이승중, 최도림. 2009. 정부신뢰의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외부신뢰와 내부신뢰의 비교분석. 행정논총. 47(3): 1-24.
- 박경순. 2014. 정책·정부 신뢰가 정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민연금정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관규, 김영대. 2015.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결정요인: 정책만족도와 정부신뢰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1(1): 163-197.
- 박병진. 2004.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 근대적 요인과 탈근대적 요인. 시민사회와 NGO. 2(2): 87-119.
- 박성운. 2018. 재해 약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향후대책. 복지이슈 Today. 60(3): 4.
- 박순애. 2006.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 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2): 73-97.
- 손호중, 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 신중호. 2013. 개인의 가치와 정부정책 선호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현정. 2008.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고찰: 취약계층을 위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4(2): 1-15.
- 이동규, 민연경. 2015.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안전인식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리서치의 재난안전 국민인식 옴니버스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Crisisonomy. 11(3): 19-38.
- 이주호, 권경득. 2013. 갈등 상황에서 협력의지에 미치는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허베이스프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4): 195-218.
- 이한태, 전우석. 2015. 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6(4): 121-145.
- 이호승. 2014. 재해약자를 배려한 구호디자인 연구: 지진재해에 대응한 구호디자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한나. 2016. 재난약자의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11(2): 1-24.
- 전미숙. 2011. 미디어와 정책 신뢰도가 의약품에 대한 지식, 태도, 위해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식. 2016. 재난안전약자의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규출. 2018.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피난대책. 복지이슈 Today. 60(3): 7.
- 최성수, 김광욱, 최진영, 김현득. 2017. 항공관광종사원의 공항서비스 정책수용성 인식이 고객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운항학회보. 25(1): 11-2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재난피해여성에 대한 복구 및 지원 방안.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한석태. 2013. 정책학개론. 서울: 대영문화사.
- 한인수. 2002. 조절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정력에 대한 연구. 노사관계연구, 13(2002년12월): 143-161.
- 황성수, 윤광재. 2018. 정책이해도, 정책선호, 정부신뢰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책이해도가 높아지면 정부신뢰도 높아지는가? 한국공공관리학보. 32(3): 209-226.
- 황아란, 서복경. 2015. 정책과정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2014년 유권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7(4): 1193-1214.

Received: May. 31, 2019 / Revised: Jun. 24, 2019 / Accepted: Jun. 30, 2019

사회적 약자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인식과 정책욕구가 정책신뢰에 미치는 영향분석

-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사용자 및 종사자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현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정책 필요성에 대한 욕구, 그리고 정부신뢰 측면에서 정책신뢰에 대해 학술적 측면에서 이들 각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그동안 논의가 부족했던 정책욕구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자료의 원데이터는 NHRCK(2018)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검증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도구 문항을 재구조화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인식과 정책욕구는 정책신뢰와 유의미한 직접 영향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하지만 정책인식과 정책신뢰 사이에서 정책욕구의 조절효과에 대하여는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를 통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인식×정책욕구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모델의 설명력 또한 오히려 낮아져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욕구가 정책신뢰에 대한 예측변수로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책욕구의 정책신뢰에 대한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관리, 정책인식, 정책욕구, 정책신뢰

Profiles

Ju Ho Lee : He received his M.A. and Ph.D.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 is a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at Sehan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16.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emergency management theory, budgetary theory, conflict manage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He has published 43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3 co-author books(leejuho@sehan.ac.kr).

Jong Il Na : He received his M.A., Ph.D. from Kyoto University, Japan in 2011. He is the director of Center for Fire Service and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National Crisisonomy Institute(NC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 has been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Management of Social Systems and Civil Engineering at Tottori University from 2011 to 2018(rajongil@gmail.com).

Seol A Kwon : She received her Ph.D.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7. She is Center Leader of Center for Disaster Safety Innovation of National Crisisonomy Institute(NC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ife environment crisis,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 theories, and risk communication (seolakwon@chungbuk.ac.kr).

Dong Kyun Yim : He received his Ph.D. from Nagasaki National University, Japan in 2017. He is a chief of Civil Safety Research Center, National Crisisonomy Institute(NC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is areas of research are safety and security of citizens, city disaster prevention, Sound Environment in shelter(jisang0508@gmail.com).

Jae Eun Lee : He received his B.A., M.A., Ph.D. from Yonsei University, Korea in 2000. He is a Director of National Crisisonomy Institute and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00.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crisonomy, disastronomy, organizational studies, and policy implementation. (jeunlee@chungbuk.ac.kr).